

독후 활동으로의 서발문에 드러난 독서 방법 고찰

— 타인의 책에 써 준 연암의 서발문을 중심으로

조 성 윤 (동국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인성적 읽기 |
| 2. 서발문의 정의와 연암 서발문의 의미 | 3.3 확장소통적 읽기 |
| 3. 독후 활동으로의 연암 서발문에 드러난 독서 방법 | 4. 서발문에 드러난 독서 방법의 의미 |
| 3.1. 주도적 읽기 |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의 한문 문체 중 서발문(序跋文)을 독후 활동의 결과라고 보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독서 방법을 추출한 후 오늘날 독서 교육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전통 시대 서발문은 대체로 타인의 책을 읽고 책의 저자에게 써 주었기 때문에 현대의 서문이나 후기와 성격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독후 쓰기 활동에 가까웠다. 서발문의 보편적 특징을 보이면서 새롭고 독특한 내용, 형식까지 고루 갖춘 연암 박지원의 서발문을 분석하여 독서를 어떻게 하였는지 세 가지 방법을 추출해 보았다. 문제의식과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독자가 주도하여 오히려 책의 내용을 압도하는 ‘주도적 읽기’, 인성의 요소인 정(情), 정(正), 예(禮)를 독서 방법으로 하여 지(知)를 넘어

인성으로 책을 읽는 ‘인성적 읽기’, 책을 읽은 구성적 독자가 새로운 창작자가 되어 또 다른 타자인 예상 독자와의 소통까지 기다리는 ‘확장소통적 읽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존의 독서 방법들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완하며, 독서 방법뿐 아니라 독서의 본질 및 지향점, 독서의 태도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범주로써 독서 교육 전 과정에 작용하는 지점들로 확장 가능하다.

주제어 : 서발문(序跋文), 독후 활동, 독서 방법, 독서 교육, 연암 박지원, 주도적 읽기, 인성적 읽기, 확장소통적 읽기, 고전 문학 교육

1. 서론

이 연구는 한문 문체 중 하나인 서발문을 독후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타인의 책에 써 준 연암의 서발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독서 방법을 추출한 후 이것의 독서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¹⁾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책을 읽는 것은 지식과 덕행을 쌓기 위한 기본 행위였다. 따라서 선인들은 경전과 시문, 역사책 등의 독서를 통해 교양과 지식을 쌓았으며, 덕을 실천하고 사람과 자연을 이해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각자의 나름대로 독서와 관련한 의견과

1) 본고에서 독서는 대체로 책 한 권 혹은 한 질 전체를 읽는 것을 뜻하고, 읽기란 독서 활동을 포함한 모든 문자 읽기를 말한다. ‘독서’의 개념 하에 이루어진 ‘독후 활동’으로의 서발문’에 나타난 의미는 이후 좀 더 포괄적 개념인 ‘읽기 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방법들을 내놓기도 하였고, 독서를 한 후에 독후 기록물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접어들며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영상매체 속에서 독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심신 수양으로서의 ‘덕행’이 빠진 ‘지식’의 기능적인 측면만 남아 독서의 목적과 활동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²⁾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독서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요소 중 독서는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어과에서 ‘읽기’를 다루고 있고, 학습자들이 글을 읽고 추론, 비판, 공감할 뿐만 아니라 독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읽기에 흥미를 느껴 궁극적으로는 읽기가 학습자에게 생활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독서’⁴⁾를 두어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있다.

2) 치유, 정서, 정신, 힐링 등의 담론이 범람하는 시대이지만, 이것들조차도 지식으로 읽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치유로, 정서로, 정신으로, 인성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3)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읽기]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학년(군)별로 내용 요소 심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표 1>의 핵심 개념을 토대로 하여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설정,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읽기의 본질, 목적에 따른 글(매체)의 유형과 읽기의 구성 요소를 알고 읽기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 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의 핵심 개념

핵심 개념			
▶ 읽기의 본질	▶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 읽기와 매체	▶ 읽기의 구성 요소 • 독자·글·맥락 ▶ 읽기의 과정 ▶ 읽기의 방법 • 사실적 이해 • 추론적 이해 • 비판적 이해 • 창의적 이해 • 읽기 과정의 점검	▶ 읽기의 태도 • 읽기 흥미 • 읽기의 생활화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교사 모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균형 있는 읽기 교육을 꾀하고 있다. 독서와 토론 혹은 독서와 논술을 통합한 교육을 지향하며, 근래에는 점점 읽기, 말하기, 쓰기의 전체 유기적 통합 교육(민병곤, 2015; 박영민, 2015; 손혜숙, 2014; 송지연, 2015)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학 교양 교육에서도 읽기, 말하기, 쓰기와 통합 교육(김경미, 2016; 나은미, 2013; 심지현, 2014)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창의 융합(강정찬, 2015; 김종윤, 2015; 노명완, 2015) 및 인성 교육 관련 읽기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박진경, 2015; 박현희, 2016; 신희선, 2013; 안중덕, 2013; 최숙기, 2013)도 활발히 나와 읽기 과정으로의 교육이 중요한 지점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관련 읽기 교육(강은주, 2016; 예경순, 2014; 이지영, 2016)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교육은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습자가 텍스트에 임했을 때 읽기 방법이나 전략과 같은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에서 ‘독서의 방법’ 영역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독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 요소⁵⁾ 및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책을 포함한 여러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독자의 감각과

4) 일반 선택 과목 ‘독서’의 목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경험을 통하여 독서 활동의 본질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독서 능력을 기르며, 독서 태도를 함양하며 가치 있는 글을 스스로 찾아 즐겨 읽는 태도를 길러 독서 문화의 발전에 기여(교육부, 2015: 92)하는 것이다.

5) 다음의 <표 2>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서’에서 ‘독서의 방법’ 영역의 학습 요소이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에 대한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에서 ‘독서의 방법’ 영역 학습 요소

사실적 읽기(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 추론적 읽기(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지거나 생략된 내용), 비판적 읽기(관점, 내용, 표현 방법, 의도나 신념), 감상적 읽기(공감, 감동), 창의적 읽기(해결 방안이나 대안)

생각, 마음, 당시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의도한 독서 목적에 맞는 읽기의 방법과 전략이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독서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다섯 가지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전통시대에는 독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가지화하지는 않았지만, 독서의 근본과 전략은 있었다. 또한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는 독서의 본질과 규범이 존재한다.⁶⁾ 즉 선인들의 독서는 지금의 독서 교육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선인들의 읽기 활동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책을 읽고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알고 현대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전통의 것이지만, 오히려 더욱 새로운 현재의 독서 교육 방법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⁷⁾

선인들이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독서에 대한 사실적 기록⁸⁾, 독서에 대한 견해를 적어 놓은 개인 기록⁹⁾, 독서를 한 후 개인적

6) 일례로, 김수경(2014)은 조선시대 독서론을 현대의 독서론과 비교, 재조명하였는데, 조선 전기 ‘임신양명형 독서’는 현대의 ‘성공 지향적 독서’, 조선 중기 ‘도학주의적 독서’는 현대의 ‘인성 중심 독서’, 조선 후기 ‘문제 해결형 독서’는 현대의 ‘행복 지향형 독서’와 상통함을 밝혔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독서의 목적과 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변함이 없다.

7)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접목할 만한 국어 교육의 방향을 찾는 근거로 전통의 기록을 활용한 연구로는 조성윤(2013)이 있다. 선인들의 고전 교술 산문에 대한 교육이 어떠했는지 밝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인성적 요소를 추출하여 현대 문학교육으로의 적용을 고찰하였다.

8) 전통 시대에 독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다. 명종 6년 3번째 기사에 ‘이제부터 유학(幼學)들로 하여금 먼저 『소학』을 익혀서 성현(聖賢)이 가르치는 법을 알게 하여 후일 덕을 증진시키고 학업을 닦는 데 근본이 되게 하고, 그 가르치는 절목(節目)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自今以後, 其令幼學之士, 先習小學), 使知聖賢爲敎之法, 以爲他日進德修業之本。其敎誨節目, 詳悉磨鍊, 曉諭中外).’는 내용이나, 성종 7년 2번째 기사에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나는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교화(敎化)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일찍이 제도(諸道)에 유시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소학』과 『삼강행실』을 강론하고 밝히게 하였었다(傳旨禮曹曰: “予惟治國之道, 敎化爲先。曾諭諸道令儒生講明《小學》, 《三綱行實》).’와 같은 내용에서 전통 시대 독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볼 수 있다.

으로 기록한 감상¹⁰⁾, 타인의 책을 읽고 나서 작자에게 보낸 서발문 등이 있다. 이 중 감상문과 서발문은 실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진 후 그 책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선인들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가장 쫓진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중 본고는 서발문¹¹⁾에 주목해 본다. 서발문은 선행연구에서 지금의 머리말이나 후기로 이어졌다¹²⁾고 보지만, 옛날의 서발은 그 의미가 지금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금의 머리말과 같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책의 전반적

9) 독서에 대한 견해가 보이는 기록물은 매우 많지만, 다음의 두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기이아(寄兒)」에서는 ‘공부할 때에는 먼저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확고하게 한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지고 못 다스려지는 이유의 근원을 알아야 하며, 또 반드시 실용의 학문에 뜻을 두어서 옛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어야 한다(必先以經學立著基址。然後涉獵前史。知其得失理亂之源。又須留心實用之學。樂觀古人經濟文字).’고 하였고,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 「교습(敎習)」에서는 ‘책을 볼 때에는 서문(序文)·범례(凡例)·저서인(著書人)·참교인(參校人) 그리고 권질(卷帙)이 얼마며 목록(目錄)이 몇 조목인지를 먼저 보아 그 책의 체제를 구별해야 하고, 대충대충 보아 넘기고서 박학(博學)했다고 해서 안 된다. 책을 읽을 때에는 손가락에 침을 문혀서 책장을 넘기지 말고, 손톱으로 글줄을 긋지도 말고, 책장을 접어서 읽던 곳을 표시하지도 말고, 책머리를 말지도 말고, 책 표면을 문지르지도 말고... 책으로 창이나 벽에 휘둘러서 먼지를 떨지도 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독서의 목적 및 독서의 자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외에도 독서의 방법, 효과, 마음가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0)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독이아변증설(讀爾雅辨證說)」이나, 『동문선(東文選)』의 「독도잠전(讀陶潛傳)」, 「독한사(讀漢史)」, 「讀姚卿雲傳(독도경운전)」, 「讀杜詩(독두시)」와 같은 기록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11) 책의 앞에 첨부되는 글을 ‘서’라 하였고, 뒤에 첨부되는 글을 ‘발’이라 하여, 이를 합칭하여 ‘서발’이라 한다.

12) 박수밀(2012)은 고전 산문 가운데 쓰기 측면에서 특별히 ‘서’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서는 지금까지도 ‘머리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아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책의 앞에는 ‘머리말’이 붙어 있는데, 과거의 서와 오늘날의 머리말은 그 기능이 거의 동일하지만 과거의 서는 산문 문학의 중심을 차지한데 비해 오늘날 머리말은 문학으로 취급되지도 못할 뿐더러 의례적인 실용문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박수밀, 2012: 366-367)고 하였다.

인 경향성을 밝히는 글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타인의 책을 읽고 부탁을 받아 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책에 대한 감상과 평가가 포함되었고, 작자의 글에서 문제점을 질의하거나 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서문과 성격을 같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독후 쓰기 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류를 했느냐를 알 수 있으며, 책을 읽고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독후 기록물을 책의 작자에게 다시 돌려주어 책을 매개로 작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곧 독자가 책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에 내용적인 면에서 독후 기록물로서의 신뢰를 주며, 책을 통한 관계 맺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에서 추구하는 ‘의사소통 역량’과도 합치된다.¹³⁾ 이것이 바로 전통시대 서발문이 독후 쓰기 역할로 의미 있는 지점이다.

서발문은 개인 간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문체로 개인 문집에 실려 있다. 남아 있는 서발문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연암이 타인의 책에 써 준 서발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암이 기(記)와 함께 즐겨 창작한 문체는 서발이었고, 따라서 남아 있는 서발문의 편수가 많다. 또한 그의 서발문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서발문의 보편적 특징까지도 고루 갖추었다. 연암이 타인의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록을 남겼는지를 통해 당대 서발문의 보편적이면서도 연암만이 가지고 있던 창의적 독서 방법까지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의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¹⁴⁾

13)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에서 추구하는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다. 이 중 ‘의사소통 역량’은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글쓴이와의 대화를 경험함으로써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14) 독자가 책의 내용을 글로 표현한 기록물은 독자의 독후 쓰기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책을 읽었는지도 알 수 있는 독서 방법(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쓰기와 읽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쓰기는 읽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서발문의 정의와 연암 서발문의 의미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이나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문으로 적어 책 앞에 붙이는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의 서문은 대체로 ‘자서’로, 작자가 자신의 글에 대한 대략과 글을 쓰게 된 경위 등을 미리 밝히는 용도로 기록하지만, 과거에는 책을 쓰거나 글을 엮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서문을 구하고, 요청을 받은 자가 서문을 써주는 문화였다.¹⁵⁾ 책의 뒤에 붙이는 발문¹⁶⁾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의 의미는 한문 문체를 분류하고 각각의 정의를 기술해 놓은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200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전에는 서사가 마치 실이 뽑아 나오듯 조리 정연한 것을 모두 서(序)라고 불렀는데, 뒷날 서적이나 문장을 소개하는 글이나 작가의 일생, 사적을 소개하거나 저작의 동기, 경위를 설명하거나 저작의 내용, 체제를 밝히고 평가하는 등의 글을 서라고 부르게 되었다(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2001: 222).¹⁷⁾

다른 사람에게 서발을 써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자세히 읽고 뜻을 깊이 파악하며, 작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발 쓰기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다. 즉 서발문은 간단하게

15) 이 논문에서 말하는 서문(序文)은 책의 앞에 붙이는 서서(書序)를 말한다. ‘서’의 문체에는 송서(送序) 혹은 증서(贈序)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것은 지인과의 송별에 임하여 주는 글로, 증서체 산문(증서문)이다.

16) ‘서’가 책의 뒤에 놓이면 후서(後序) 혹은 발(跋)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발은 서에 비해 간략하고 포괄적이며 주로 보충 설명하는 형식을 띠었다.

17) 타인에게 ‘서’를 구하는 것은 좌사(左思)에게서 비롯되었다. 전하는 말에, 좌사는 「삼도부(三都賦)」를 이룬 뒤, 자신의 명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여겨, 당시의 저명한 학자인 황보밀(皇甫謐)에게 ‘서’를 써달라고 청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황보밀이 「삼도부서」를 써주었다고 한다. 그 뒤로 문집을 완성하면 남에게 ‘서’를 구하는 것이 풍조로 되었다. 문집을 편집한 뒤에 남에게 ‘서’를 지어 달라고 하기도 했고, 남의 문집을 편집하면서 동시에 ‘서’를 짓기도 하였다(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2001: 223).

책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작자와 작자의 문학관을 소개하고 책의 내용을 평론하면서 그 기술 방법으로 서사와 의론 등을 검하는 서술 방법을 쓰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난 후의 독후 활동과 같다. 즉 전통적으로 서발을 써주는 문화와 지금의 독후 활동이 갖는 의미는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서발문은 과거의 독서 활동과 책을 읽은 후 어떤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로, 국어 교육에서도 독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책의 저자가 직접 부탁하는 글이면서, 저자와 서문을 써주는 이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발 쓰기는 더욱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처럼 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알고, 글의 정묘한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자의 의중을 적중시킨 독서 감상문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발문은 작자를 만족시킬 만한 가장 충실한 독서 감상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학습자들의 독후 쓰기 활동에 지침을 줄 수 있다. 지금의 독후 쓰기 활동은 전통 시대의 서발문처럼 작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자의 의미를 오독하지 않고 의중을 잘 살펴, 자신의 의론을 펼치고 논평을 하는 것은 서발문과 상통한다.

지금의 학습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서발문에는 연암 박지원의 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⁸⁾ 연암은 『연암집』의 「元士」라는 글에서 선비가 독서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기록하였다. 이 인용문을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서발을 써주었는지 알 수 있다.

(상략) 잘 아는 글자라고 소홀히 하거나 쉽게 여기지 말고, 글자를 달리듯이 미끄러지듯이 줄줄 읽지 말며, 글자를 읽을 때 더듬거리지 말며, 글자를 거꾸로 읽지 말며, 글자를 옆줄로 건너뛰어 읽지 말라. (중략) 책을 대하면 하품도 하지 말고, 책을 대하면 기지개도 켜지 말고, 책을 대하면 침도 뱉지 말고, 만

18) 조선 전·중기에 타인의 책에 써준 서발문도 많지만 이 시기의 책은 대체로 성정순화(性情純化), 세교(世敎), 도본문말(道本文末)과 같은 성리학적 내용을 담고 있고, 서발문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서발문 중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일 기침이 나면 고개를 돌리고 책을 피하라. 책장을 뒤집을 때 손가락에 침을 바르지 말며, 표시를 할 때는 손톱으로 하지 말라. (중략) 책을 베개 삼아 베지도 말고, 책으로 그릇을 덮지도 말며 권질을 어지럽히지 말라. 먼지를 털어 내고 좀벌레를 없애며, 햇별이 나는 즉시 책을 펴서 말려라. 남의 서적을 빌려 볼 때에는 글자가 그르친 데가 있으면 교정하여 쪽지를 붙여 주며, 종이가 찢어진 데가 있으면 때워 주며, 책을 맨 실이 끊어졌으면 다시 꿰매어 돌려주어야 한다. (중략) 차분하고 느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제멋대로 천착하지 말고 억지로 의심하지 말 것이며,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략) (『연암집』 하, 378-379쪽)¹⁹⁾

연암은 책을 읽을 때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타인과 함께 책을 공유하면서 상대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고, 내용을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으며, 책에 대한 궁구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연암 서발문의 바탕이 된다.

연암은 평소에 책을 많이 접하여 박학다식하였고,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따지는 바가 출중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와 교유하던 자들은 연암을 믿고 서발을 많이 요청하였다. 연암의 서발을 보면, 그의 교유 관계와 그들의 책을 읽고 답론을 주고받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독특한 문장으로 글을 쓴 것으로 유명했다. 한문 문체는 양식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그 틀에 맞추어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연암은 상식을 깨고 자유분방하게 글을 썼다.²⁰⁾ 즉 독서와 쓰기에 능통했고, 특히 쓰기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행위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개성적이었다. 따라서 그의 서발문도 상투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보편성을 아예 탈피한 서발문을 쓴 것도 아니었다. 독특한 내용과

19) 이 연구에서는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燕巖集)』 상, 중, 하, 돌베개.’를 참고하였다.

20) 심지어 전통적인 문체를 벗어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한자로 고유어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문장 안에 해학과 풍자를 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그의 문장이 문체를 어지럽힌다 하여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형식을 시도하되 당시 서발문의 양식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암의 서발문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서발문의 보편적인 양상을 추출하기 위한 예가 될 수 있다. 정일남(2008), 박수밀(2012)에서 연암의 서문이 일반적인 서문의 특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논문들에서 제시한 연암 서문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강한 논리성에 다양한 수사법을 운용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천명하는 그릇으로 이용(정일남, 2008)했다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쟁을 유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형식을 활용(박수밀, 2012)했다는 부분들은 모두 여타 서발문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암의 타인의 책에 써준 서발의 양상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의 ‘독서’ 내용체계에서 ‘독서의 태도’ 영역에서 추구하는 바²¹⁾, ‘화법과 작문’의 ‘화법과 작문의 태도’ 영역 내용²²⁾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가 읽은 책의 감상 및 평가와 제반 내용들은 지금의 독후 쓰기 활동에 시사할 만한 점이 많다.

연암의 서발문은 『연암집』과 『열하일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책에 써 준 서발 17편을 <표 3>과 같이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²³⁾

2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의 내용체계 중 ‘독서의 태도’를 보면, 학습요소는 ‘독서 계획과 실천(자발적 독서), 독서 문화 형성, 타인과의 교류, 삶의 방식과 세계관 이해’이며, 성취 기준은 ‘[12독서04-01]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한다.’와 ‘[12독서04-02]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이는 연암의 평소 독서 태도 및 타인의 책에 서발을 써주기 위해 책을 읽는 과정과 합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2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의 내용체계 중 ‘화법과 작문의 태도’를 보면, 학습 요소는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 의사소통 윤리, 화법과 작문의 가치, 의사소통의 진정성, 담화 관습, 작문 관습, 화법과 작문의 문화’이며, 연암의 서발 쓰기와 관련지을 수 있는 성취 기준은 ‘[12화작04-01]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12화작04-02] 화법과 작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표 3〉 타인의 책에 써 준 연암의 서발문 목록

	제목		제목
1	회우록서(會友錄序)	10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
2	초정집서(楚亭集序)	11	북학의서(北學議序)
3	홍범우익서(洪範羽翼序)	12	풍악당집서(楓嶽堂集序)
4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 ²⁴⁾	13	유씨도서보서(柳氏圖書譜序)
5	자소집서(自笑集序)	14	영처고서(嬰處稿序)
6	회성원집발(繪聲園集跋)	15	녹천관집서(綠天館集序)
7	낭환집서(琅丸集序)	16	영재집서(淸齋集序)
8	녹앵무경서(綠鸚鵡經序)	17	순괘서(旬稗序)
9	우부초서(愚夫艸序)		

〈표 3〉의 서발은 모두 『연암집』에 실린 글로, 『열하일기』에 보이는 서발은 연암 자신의 글에 대한 서발이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17편의 글은 타인에게 요청받아 써 준 글이 대부분이며, 자발적으로 타인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붙인 서발도 있다. 모두 독서 후 쓰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독후 기록물인 서발문에서 그가 타인의 책을 어떤 기준으로 읽었는지 독서 방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3. 독후 활동으로의 연암 서발문에 드러난 독서 방법

이 장에서 추출한 연암 서발문에 드러난 독서 방법들은 큰 틀에서는 여타 일반 서발문의 보편적 특징과 상통한다. 연암의 서발문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면이 있긴 하였지만 보편성을 아예 탈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독서 방법의 표본을 추출하는 데에도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추출한 3가지의

23) 자서, 그림이나 글씨에 붙인 서발, 남을 대신하여 지은 서발, 이 세 가지는 제외하였다.

24) 인(引)은 서(序)와 문장의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이것 역시 서발류로 분류된다.

독서 방법 각각의 하위 요소로 제시된 특징들은 다른 서발문에는 없는 연암만의 독특한 방법들로 보장되는 지점도 있다.

3.1. 주도적 읽기

연암의 서발에 드러난 독서 방법의 첫 번째는 책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논리를 주도적으로 세우고 있어 소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두부터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하고 주장을 많이 드러내는데, 이는 연암이 책을 수동적으로 읽지 않고 능동적으로 읽은 것이다. 읽은 책의 이론을 따라가거나 책의 정보와 지식을 나열하지 않고 마치 논변류 산문 기술 방식과 같이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신을 담아 주도적 읽기를 한 흔적을 보인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존의 능동적 읽기나 자기주도적 읽기와의 차이점은 독자가 이끌어내는 대상이 책의 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읽은 책을 압도하고, 그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서발문을 따라 읽다보면, 타인의 책을 읽고 쓴 서발이 아니라 그의 단독적 문장론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초정집서(楚亭集序)」와 「영처고서(嬰處稿序)」는 연암의 주도적 읽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문이다. ‘법고창신’은 연암이 문학 창작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내세운 것으로, 박제가의 『초정집(楚亭集)』 서문에 이것을 소신껏 펼쳤고, 이덕무의 『영처고(嬰處稿)』 서문에는 조선풍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펼쳤다.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단 말인가? 나는 장차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면 문장 짓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아! 소위 법고한다는 사람은 옛 자취에만 얽매는 것이 병통이고, 창신한다는 사람은 상도에서 벗어나는게 걱정거리이다. 진실로 법고하면서도 변통할 줄 알고 창신하면서도 능히 전아하다면 요즈음의 글이 바로 옛글인 것이다.(후략)(연암집 상, 24쪽)

(전략) 지금 무관은 조선 사람이다. 산천과 기후가 중화 땅과는 다르고 언어

와 풍속도 한당의 시대와 다르다. 그런데도 만약 작법을 중화에서 본뜨고 문체를 한당에서 답습한다면 작법이 고상할수록 내용이 비루해지고, 문체가 비슷할수록 그 표현이 더욱 거칠기 됨을 볼 뿐이다. (중략) 이 『영처고』를 상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남녀의 성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를 조선의 국풍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연암집 하, 77-80쪽).

또한 한 번 써준 서발문의 내용을 개작하여 다른 사람의 서발문으로 준 경우²⁵⁾도 보이는데, 이것은 서발문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주도적 읽기 방법은 책의 핵심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의미를 재조직하여 통찰해야 할 수 있는 일이며, 책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읽어야만 가질 수 있는 독서 방법이다. 또한 독서 후 활동에 대한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독후 쓰기 활동을 하나의 새로운 지식이나 문장론을 구성하는, 자신만의 창작물을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도적 읽기는 기존의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창의적 읽기와는 뚜렷이 변별된다. 글 속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와 생각을 파악하고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과정은 같지만, 문제의식과 주관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독서를 해나가고, 독서 후에도 근기가 흔들리지 않아, 책을 구성적으로 읽으며 ‘오히려 독자가 주도하여 책 내용을 압도하고 넘어서는 것’이 주도적 읽기이다. 근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좁은 생각에 집착하는 아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쫓대없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또한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는 고쳐나갈 수 있는 유연성도 내포함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연암 서발문에 보이는 주도적 읽기의 기본 뼈대이다.

또한 문제의식에 대해 작자와 학술적으로 토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대

25)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는 원래 이정구의 시집 『선서재집(蘚書齋集)』의 서문으로 써준 것인데, 이후에 개작하여 박종선의 『능양시집(菱洋詩集)』의 서문으로 주었다(연암집 하, 61-64쪽).

화의 형식을 보이기도 하는데, 일례로 「회우록서(會友錄序)」를 들 수 있다. 이 서문은 홍대용이 북경에 가서 사람들과 만난 사연, 그들과의 필담 내용 등을 책으로 편찬한 『간정동회우록(乾淨同會友錄)』의 서문으로 써준 것이다. 서문에서 연암은 ‘한 마을, 한 나라 안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려 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청나라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허락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이에 대해 홍대용은 ‘화이(華夷)의 차별 없이 진정을 토로하고 간담을 피력하면 누구와도 벗할 수 있다’고 답했다(연암집 상, 20-22쪽). 벗 사귀는 도리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내용을 서문에 정리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책의 내용을 요약, 의미 있는 지점을 밝혔다.

또한 저술 내용의 근원을 고증하여 진위를 가리거나 이론을 밝히는 형식도 있다. 「홍범우익서(洪範羽翼序)」가 대표적 예이다. 이 서문에서는 ‘홍범’에 대한 근원과 가치, 내용 등을 옛 문헌과 선인들의 논리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혔다(연암집 상, 39-43쪽).

주도적으로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거나 소신 있는 책 소개를 위해 흥미 있고 적절한 비유, 이야기, 인용으로 타당성을 높이는 형식도 보이는데, 「낭환집서(螭丸集序)」는 소경 이야기, 황희 정승 이야기, 임제 이야기를 통해 자패(유연)가 『낭환집(螭丸集)』이라는 시집의 이름을 붙인 연유를 밝히고, 정령위와 자운의 이야기를 비유하여 시집의 가치를 평가했다(연암집 중, 49-52쪽). 또한 「영재집서(潁齋集序)」는 장석(匠石)과 석옹중(石翁仲)의 대화, 양자운의 『태현경』 이야기를 기술한 서문이다. 인용과 비유만으로 기술한 서문이지만, 이 안에서 책을 저술한 작자의 의도, 독자인 연암의 입장과 견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연암집 하, 87-88쪽). 이러한 형식은 문학성을 띠어 한 편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서구가 북경에서 푸른 앵무새를 접한 후 앵무새에 관한 각종 기록들을 모아 편찬한 책인 『녹앵무경(綠鸚鵡經)』에 써준 서문을 보면, 연암이 흰 앵무새 꿈을 꾸고 박수무당을 불러 꿈 얘기를 주고받은 과정을 한 편의 이야기와 같이 기술하였다(연암집 하, 53-57쪽). 긴장, 감동, 깨달음 등을 극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연암의 주도적 읽기는 ‘책의 내용에 한정된’ 그간의 독서 방법을 성

찰하게 하고, 독서를 통해 무궁무진한 발상의 세계와 자신만의 논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즉 독자의 인식 속에는 책의 내용이 들어 있지만, ‘읽은 책을 압도하고, 그 내용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주도적 읽기의 결과물에는 책의 줄거리나 철저한 내용 기반의 기록을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독후 쓰기 활동에서 한층 더 나아간 형태로, 쓰기의 방법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독자가 진정으로 주동자가 되어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인성적 읽기

연암의 서발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 독서 방법 두 번째는 인성적 읽기이다. 책의 내용 및 저술 의도에 대한 신뢰 및 애정, 공정함, 배려, 예절 등을 보이는 점은 단순한 책 내용 읽기도 아니고, 작자와 독자가 아는 사이라 서발을 써준다는 측면을 넘어서 책을 저술한 작자를 진정한 ‘인간’으로 대하고 읽은 인성적 읽기이다.

‘인성적 읽기’라 하면 인성 관련 내용의 독서를 하거나, 독서 활동을 통해 독자가 인성을 함양하게 된다는 의미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성적 읽기란 ‘인성의 요소를 독서 방법으로 하여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그 첫 번째는 ‘정(情)으로 읽기’이다. 서발문은 마음으로 책을 읽고 이에 대한 서발을 써서 작자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 있는 글쓰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서를 할 때 정을 기반으로 하여 읽었을 것이다. 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성품을 이루는 두 요소 성(性), 정(情) 중 하나로 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이라서 인간 행위의 모든 양태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지만, 지금의 독서 교육에서 독서라는 행위에 이것을 엮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발문에서는 정의 기능이 온전히 드러난다.

독서의 방법 중 감상적 읽기가 있으나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감상적 읽기는 작품을 심미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아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인성적 읽기에서 정으로 읽기는 애정을 기저로 작가를 포함한

작품 전체에 인간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책의 내용 및 저술 의도에 대한 신뢰 및 애정으로 읽기를 뜻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써준 서발문은 책의 내용 및 저술 의도,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및 애정이 포함되었다고 보지만 특히 자신의 생각, 철학에 합치되거나 작가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가 있는 문집의 경우 서발문에 애정과 신뢰가 더욱 드러난 경우가 있다. 연암이『녹천관집서(綠天館集序)』에서 옛글을 모방하지 않고 새롭게 글을 쓴다고 비난받는 그의 제자 이서구에게 애정과 신뢰를 더한 충고, 대저 방안을 기술(연암집 하, 84-86쪽)한 지점이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正)으로 읽기’이다. 책에 대한 정직하고 공정한 읽기를 말한다. 책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읽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보이며 읽는다. 그러나 사실적 읽기와는 다른데, 서발문에는 독자로서의 책임감이 훨씬 더 부여되기 때문이다. 서발문은 타인에게 부탁을 받고 주어진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쓰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 있다. 연암의 서발문에서도 독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작자를 권면하는 부분이 보인다. 연암은『초정집서(楚亭集序)』에서 박제가의『초정집(楚亭集)』은 창신이 지나치다고 하면서 차라리 법고가 지나친 것만 못하다고 권면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그러니 창신을 한답시고 재주 부릴진댄 차라리 법고를 하다가 고루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내 지금『초정집(楚亭集)』을 읽고서 공명선과 노나라 남자의 독실한 배움을 아울러 논하고, 회음후와 우후의 기이한 발상이 다 옛것을 배워서 잘 변화시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밤에 초정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마침내 그 책머리에 써서 권면하는 바이다(연암집 상, 27-28쪽).

책의 작자가 아는 지인이라서, 혹은 그를 칭찬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서문을 써주는 모습이 아니다. 연암은 독자로서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읽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기에 작자와 독자

간의 인성적 관계로의 책임감이 더해져 진심으로 작자를 위한 바르게 읽기를 하였다.

세 번째는 ‘예(禮)로 읽기’이다. 작자에 대한 친절과 예의의 읽기라고도 할 수 있다. 작자의 학문적 지식 및 작자의 저술 태도 등에 대한 관용과 친절을 말한다. 연암 서발문 전반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태도이자 독서 방법이다. 작자와 작품에 대한 예의는 독자의 기본 태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무조건 강제되는 규범이 아니기도 하고, 작자와 독자의 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로 독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다. 물론 서발문에 예로 읽기의 양상이 보이는 이유가 독자의 작자와의 친분에 의한 것일 수도, 서발을 다시 써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발문에 보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이 기저로 깔린 타자에 대한 심려는 무조건적이거나 무차별적인 배려가 아니라, 독자로서의 인식과 지각이 있는 배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연암 서발문을 중심으로 옛 서발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성적 읽기였고, 그것은 결국 지와 행이 합일되는 경지이다. 지식이 곧 실천과 태도였던 것이다. 즉 책을 ‘지(知)’로 읽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 읽어 독서를 통해 인성의 생활화, 습관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²⁶⁾

3.3. 확장소통적 읽기

연암 서발문에 보이는 독서 방법의 마지막은 읽기에 ‘확장소통적 구조’가 보인다는 점이다. 책을 매개로 한 다층적 대화이다. 이는 ‘3.1의 주도적 읽기’

26) 이것을 교육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독서 교육은 비판적 읽기를 강조하고, 창의 교육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다. 또한 지식(知)을 통해 실천과 태도(行)를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지와 행이 따로 떨어져 서로를 향해 가는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적 읽기를 하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혹은 3.2의 ‘인성적 읽기’의 하위에서 ‘소통’의 측면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따로 분류를 해본다.

독자인 연암은 책의 내용과도 소통하고, 책을 통해 자신과도 소통하며, 책을 쓴 작자와도 소통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모든 타자인 예상 독자들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첫째, 책의 내용과의 소통은 흔히 활용되는 독서 방법이다. 「회성원집발(繪聲園集跋)」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나라 객집환의 시고(詩稿)에 연암이 발문을 붙인 것으로, 천고의 옛 사람을 벗 삼는 상우(尙友)의 방식으로 그의 시를 대하고, 시가 실린 책의 내용에 대한 감상평을 기록한 것이다. 발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봉규의 시는 성대하도다! 장편의 시는 소호 풍악이 일어나듯 하고, 짧은 시들은 옥이 부딪치듯 맑게 울린다. 시가 차분하고 기품이 있으며 따뜻하고 우아함은 낙수의 놀란 기러기를 보는 것 같고, 깊이 있고 쓸쓸함은 동정호의 낙엽지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그러니 나는 또 이 시를 지은 이가 자운인지, 읽는 이가 자운인지 모르겠다. 아, 언어는 비록 다르나 문자는 똑같으니, 그가 시에서 즐거워하고 웃고 슬퍼하고 우는 것은 통역을 안 해도 바로 통한다. 왜냐하면 감정을 길조로 꾸미지 않고, 소리가 충심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이다(연암집 중, 112쪽).

이는 문자로 이루어진 책과의 소통을 통해 작자와도 소통할 수 있었음을 말한다. 즉 이 발문에 보이는 시고의 감상평은 책의 내용과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책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는 것은 책을 읽고 관련된 사건, 상황, 내용 등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다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관련 예로 「풍악당집서(楓嶽堂集序)」가 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인’이라는 스님의 시문집에 대한 서문으로, ‘준’이라는 스님과의 일화를 들며, ‘보인’처럼 뛰어나 배울 만한 자와의 교유를 놓친 것에 한탄을 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연암집 하, 69-72쪽).

셋째, 책을 쓴 작자와 소통은 「자소집서(自笑集序)」를 통해 볼 수 있다.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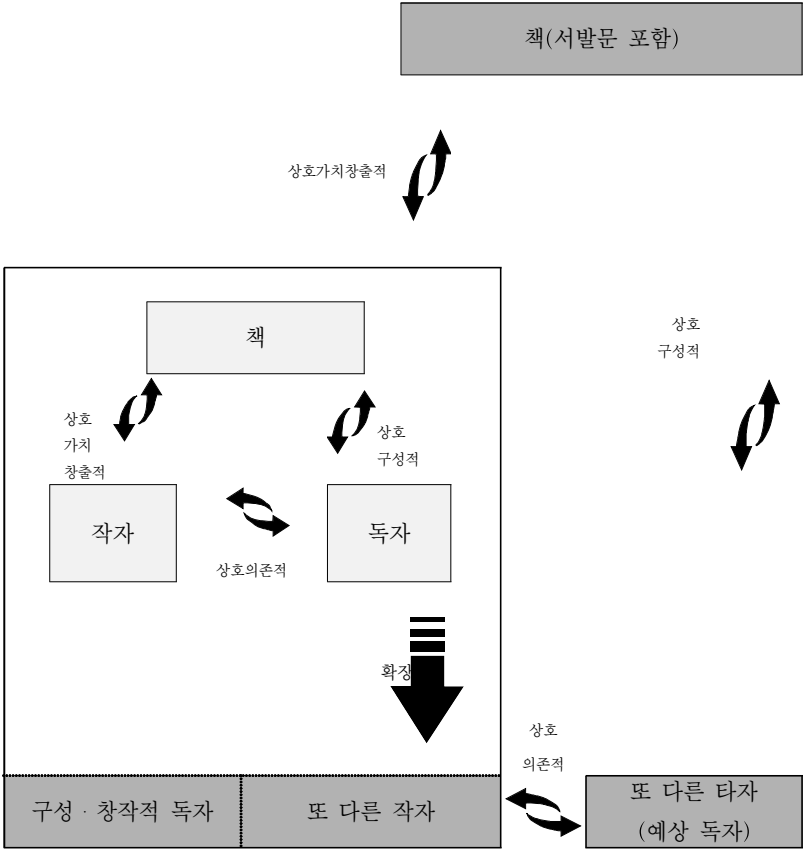
자와 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록, 독자가 책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작자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것 등은 「자소집서(自笑集序)」에서 작자와 소통으로의 독서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암은 이홍재의 『자소집(自笑集)』에 논, 변, 서, 기, 설 등 해박한 내용의 고문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직업이 역관임을 강조하면서 의아함을 품었다. 그러나 작자인 이홍재는 사대와 교린의 외교를 하는 역관이 오히려 글을 잘 짓고 장고(掌故)에 익숙해야 함을 역설하였다(연암집 중, 36-37쪽). 서문에 이러한 이들의 대화가 직접인용으로 들어 있고, 이것은 작자와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암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모든 타자인 예상 독자들과도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에 써준 「북학의서(北學議序)」에는 박제가의 북경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일치한다고 기술했다. 자신들이 연구하고 토론해 오던 ‘중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론을 북경을 다녀온 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소통의 한 방법이다. 아직 믿지 않는 타인들은 앞으로의 『북학의(北學議)』 독자이며, 이 책을 통해 깨우치고 함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문에 내포되어 있다(연암집 하, 65-68쪽). 또한 「유씨도서보서(柳氏圖書譜序)」의 마지막에 ‘책을 빌려주지 않는 야박한 세태’를 비판하며, 이후의 예상 독자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연암집 하, 73-76쪽).

대체로 독후 활동에서 감상문은 책과 소통한 후 자신의 삶에 빗대어 감상·성찰하는 것으로 마친다. 따라서 책이나 독자 자신과의 소통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구도이다. 또한 책을 읽는 행위는 작품을 통한 작자와 독자의 만남·소통·정신적 교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작자와의 소통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독자가 책을 읽고 또 다른 타자인 예상 독자와 소통하는 결과물을 보이는 경우는 독특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책을 읽은 독자인 연암이 서발문

에서 또 다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연암이 독자의 역할만 행했다는 뜻이 아니다. 독서를 통해 형성된 구성적 독자가 새로운 창작자가 되어 책과 자신의 서발문을 읽는 독자를 기다린다는 뜻이 포함된다. 책, 작자, 독자의 소통이 독자의 서발문을 통해 다시 책(서발문), 작자, 독자의 소통으로 중첩된다. 따라서 이것은 ‘확장소통적’으로 책을 읽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암 서발문에 드러난 ‘확장소통적 읽기’의 구조

작자는 책의 창조적 주체이다. 작자 또한 책이 없으면 드러날 수 없는 존재이다. 서로 의미와 중요성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사이이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상호가치창출적이다. 작자와 독자는 책을 통해 대화한다. 독자는 작자가 저술한 텍스트를 읽고, 작자는 독자가 있어야 계속 저술 활동 세계에서 잔존할 수 있다. 이 둘은 저술이라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들이면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독자는 책을 단순히 수용하기도 하지만 수용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해 책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구성하여 재생산한다. 책은 다양한 독자들을 구성하고 포함한다. 따라서 독자와 책의 관계는 상호구성적이다.

이 관계에서의 독자는 구성적 독자이면서 서발문을 지은 창작적 독자이다. 즉 책을 저술한 작자와는 또 다른 새로운 작자이다. 이 ‘새로운 작자’와 ‘서발문을 포함한 책’과 ‘또 다른 독자인 앞으로의 예상 독자’는 다시 상호관계를 맺는다. 즉 상호관계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며 뒤에 이루어진 관계는 책-작자-독자의 관계가 한층 더 확장소통된 읽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암은 타인의 책을 읽고 서발문을 쓸 때 책과 자신과 작자와의 소통을 넘어서 자신이 다시 주체가 되어 앞으로의 새로운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그리며 그와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였다.

4. 서발문에 드러난 독서 방법의 의의

서발문은 교술 산문으로 문학 교육의 제재로도 활용될 수 있으나, 국어교육 안에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발문을 써준 자는 책의 독자이고, 서발문은 책을 읽은 후의 기록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독후 쓰기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 교육에서 서발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연암의 서발문에서 추출한 독서 방법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독서(읽기) 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서’ 과목 ‘독서의 방법’에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읽기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에서 ‘독서의 방법’ 성취 기준이다.

<표 4>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에서 ‘독서의 방법’ 영역 성취 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이 5가지의 독서 방법은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필자의 가치관이나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기도, 감상적으로 읽기도 하며 필자의 관점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교육부, 2015: 95).

연암 서발문에서 추출한 독서 방법인 주도적 읽기, 인성적 읽기, 확장소통적 읽기의 3가지 역시 다음의 <표 5>와 같이 성취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5> 연암 서발문에서 추출한 독서 방법의 성취 기준 예시

1. 글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구성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자신만의 주관이나 견해를 소신껏 드러내어 책의 내용을 주도하며 읽는다.
2. 글에 드러난 저술 의도와 내용을 신뢰 및 애정, 공정함, 배려, 예절 등의 인성적 요소로 읽는다.
3. 글에서 작자, 내용과 상호 소통을 하며 읽고, 새로운 구성적 독자로서 서발문을 포함한 글의 내용 및 또 다른 타자인 예상 독자와 확장소통적으로 읽는다.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위의 <표 5>와 같이 성취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이 3가지 독서 방법들은 기존의 독서 방법들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완하여 독서 방법을 더욱 다양화시킬 수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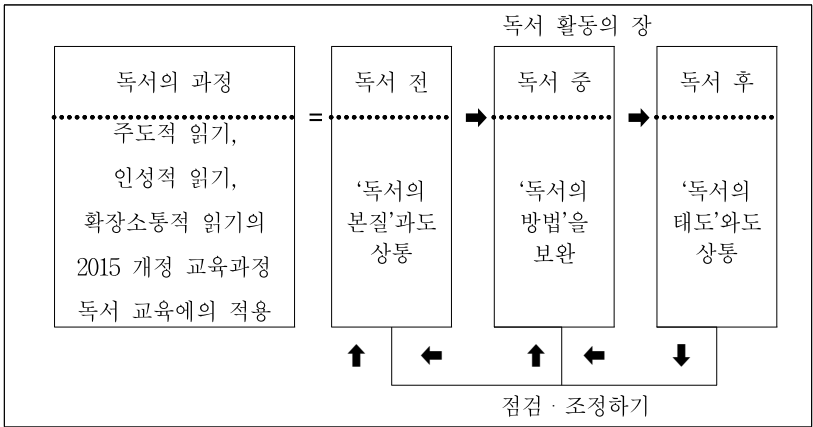
둘째, 연암 서발문에서 추출한 독서 방법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독서 방법의 범주와 같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특정 글이나 책에 꼭 맞는 전략적 독서 방법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독서의 태도 및 독서의 지향점, 본질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범주이다. 다시 말하면 주도적 읽기, 인성적 읽기, 확장소통적 읽기는 독서의 방법이기도 하면서 독서 과정 전반의 태도에도 해당 되고, 독서 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독서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서’에서 ‘독서의 태도’ 영역은 학습자가 다양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 속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폭넓게 이해하고, 타인 및 글과 소통하는 삶을 살며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교육부, 2015: 99)한 것이다. 저술한 책과 서발문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독서 문화를 형성하고, 책에 담긴 작자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독자가 주도적으로, 인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이후에 자발적인 독서 실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은 서발문에 기록된 내용 양상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선인들의 독서 태도이다. 지금 교육과정에

27) <표 5>의 성취기준 해설은 앞서 3장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설명 가능하다.

서 ‘독서의 태도’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들은 다시 모두 독서의 지향점과도 상통하는 바, 서발문에서 추출한 3가지 독서의 방법들은 독서 활동의 표본, 목표, 지향점도 된다.

또한 ‘독서의 본질’도 독서의 방법 3가지와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 ‘독서의 본질’의 첫 번째 성취 기준은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교육부, 2015: 94).’이다. 본고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책을 읽는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3장에서 추출한 인성적 읽기 및 확장소통적 읽기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림 2] 연암 서발문에서 추출한 독서 방법의 독서 교육 전 과정으로의 확장²⁸⁾

결국 연암 서발문에서 추출한 독서 방법은 독서의 본질, 독서의 지향점과

28) 실제 교육과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목표, 본질, 방법, 태도의 층위가 달라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추출한 서발문에서의 독서 방법 3가지가 다른 층위에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한 것은 주도적 읽기, 인성적 읽기, 확장소통적 읽기의 성격과 요소들이 다른 영역과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 기존 독서 방법들보다 더 밀접하다는 의미이다.

도 함께 아울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주도적 읽기, 인성적 읽기, 확장소통적 읽기의 3가지는 위의 [그림 2]와 같이 독서 교육의 전 과정에 작용하는 지점들로 확장시킬 수 있다.

5. 결론

독서 교육의 목표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주제, 유형, 분야의 글을 적절한 방법, 전략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독서의 방법에 대한 다각도로의 탐색과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독자마다 독서를 통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바가 모두 다르므로 독서의 방법이 다양한 면모로 드러나야 옳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대한 실천적 모색으로 선인들의 독후 활동이었다고 판단되는 서발문을 분석하여 변화된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독서의 방법들을 추출해 보고, 그 의의를 독서 교육과정 속에서 찾아보았다. 옛날의 독서와 지금의 독서는 시공간과 독서의 대상, 독후 활동의 모습들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옛 독서 활동 속에는 현재에 의미 있고, 진정한 독서의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불변의 독서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독서 방법은 곧 독서의 태도, 목표, 본질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독서 문화의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불어 서발문과 같은 고전 텍스트의 가치가 이 시대의 기능 교육에의 활용 방안으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주(2016), 「다문화 가족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이중언어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적 접근에 대한 고찰」, 『독서치료연구』, 8(1), 1-18.
- 강정찬(2015), 「창의·융합 독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모형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19(3), 713-742.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별책 5].
- 김경미·홍인숙(2016),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독서토론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語文論集』, 67, 373-395.
- 김수경(2014), 「조선시대와 현대 독서론의 비교 연구」, 『디지털도서관』, 73, 3-14.
- 김종윤(2015), 「창의, 융합 과정으로서의 독서 개념의 타당성 고찰」, 『독서연구』, 35, 79-109.
- 나은미(2013), 「교양 기초 교육으로서 읽기·말하기·쓰기의 연계 및 통합 유형 검토 및 제안」, 『대학작문』, 6, 7-36.
- 노명완(2015), 「창의, 융합 과정으로서의 독서, 작문교육과 테크놀로지」, 『독서연구』, 35, 9-48.
- 민병곤(2015), 「화법, 독서, 작문교육 연구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시사」, 『국어교육』, 151, 93-121.
- 박수밀(2012), 「박지원 서(序)의 서두 글쓰기 전략」, 『작문연구』, 14, 365-394.
- 박영민(2015), 「화법, 독서, 작문 영역의 통합」, 『국어교육』, 148, 33-51.
-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2007), 『연암집』 상, 중, 하, 돌베개.
- 박진경(2015), 「고등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 『수사학』, 22, 99-139.
- 박현희(2016), 「인성함양을 위한 구성주의적 고전 읽기 수업 모형」, 『수사학』, 26, 63-105.
- 손혜숙(2014), 「읽기·말하기·듣기·쓰기를 연계한 통합형 읽기 교육 방안

- 연구, 『語文論集』, 58, 401-431.
- 송지연(2015), 「독서-작문 통합 교육을 위한 요약문 쓰기 수업 탐색」, 『독서연구』, 36, 9-38.
- 신희선(2013), 「인문학 독서토론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고찰」, 『倫理研究』, 90, 313-351.
- 심지현(2014), 「서평쓰기를 위한 읽기 쓰기 통합교육 수업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8(5), 131-156.
- 안중덕(2013), 「Mefot 기반 독서활동과 과정중심 독서지도가 청소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Mefot 창의인성연구』, 2(2), 25-40.
- 예경순(2014), 「다문화 문식성 향상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1(1), 13-135.
- 이지영(2016),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서교육 방향 탐색: 국어교육 연구와 아동·청소년 문학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40, 89-118.
- 정일남(2008), 「박지원 서문(序文)연구 : ‘열하일기’ 서문(序文)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18, 731-759.
- 조선왕조실록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조성윤(2013), 「인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고전교술산문교육 연구 —〈조선왕조실록〉 자료를 기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필상 지음, 심경호 옮김(2001),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 최숙기(2013), 「인성 교육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청람어문교육』, 47, 205-232.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Abstracts】

The Method of Reading shown in Prologue and Epilogue deemed as Book Reporting Activities

— Focused on the Yeonam's Prologue and Epilogue written on others' Books

Cho Seong-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logues and epilogues of classical Chinese literary works considering they are the results of reading activities, and to gain implications as to reading education today. The prologues and epilogues in the old days were closeed to make a book report rather than the definition of writing modern day prologues and epilogues since those activities were intended to a write for the author of a book after reading it.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has analyzed prologues and epilogues written by Yeonam Park Ji-won that feature new and unique content and style while showing universal characteristics, based on which three different methods of reading have been obtained.

The study has found 'self-motivated reading' where a reader takes the lead and overwhelms the content of a book with a clear critical and subjective mindset, 'reading of integrity' that enables a reader to read a book with upright character and integrity beyond the boundary of knowledge with elements of integrity, including human nature(情), righteousness(正), and manners(禮) taken as the method of reading, and

‘reading as extended communications’ that allows a current reader to become a new writer and to seek communications with other potential readers. It indicates that these methods supplement the elements ignored by the existing reading methods presented in the official education curriculum and can expand to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to cover the essence, direction and the attitude of reading as well as the method of reading.

Key words : prologue and epilogue, book-reporting activities, method of reading, reading education, Yeonam Park Ji-won, self-motivated reading, reading of integrity, reading as extended communications,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이 논문은 2017년 5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1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